







2022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 2단계 아장아장(2~3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그래 어떤 색을 갖고 싶어?	곰곰	냉이꽃	2020	<p>다양한 관점으로 만나는 색과 무늬 그림책. 이제는 다른 색을 갖고 싶은 너무너무 까만 고양이들. 갖고 싶은 색도 다 다르고, 갖고 싶은 이유도 다르다. 빨강, 하양, 노랑, 초록, 보라, 파랑..... 다른 색을 갖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또 갖고 싶은 색과 검정이 만나면 무슨 무늬가 될까? 살금살금 슬금슬금 등 여러 가지 의성어와 의태어가 가득해서 아기와 말놀이하기 좋다.</p>
2	내 팬티 어딴어?	조은수	풀빛	2021	<p>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조은수 작가 글에 안태형 작가가 실제 유아 티셔츠와 팬티, 채소를 찍은 사진에 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장면을 만들었다. 한 장면을 위해 수십 장을 고치고 또 고쳐서 만들었다. 두 작가는 아이들이 이 책을 킁킁대며 재미있게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p>
3	누구 밥일까요?	김은정	그린북	2020	<p>동물과 먹이를 하나씩 짝지으며, '밥'의 주인을 찾아보는 내용이다. 누구에게나 밥을 먹는 행복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복 읽기를 통해 먹이와 동물을 짝지을 수 있게 된다. 먹이를 보고 동물을 알아맞히는 놀이의 즐거움도 놓칠 수 없다. 한편 아기가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 동물의 모습에서 우리 아기들도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것이다.</p>
4	땅콩 동그라미	최윤희	시공주니어	2021	<p>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 땅콩 동그라미를 통해 다양한 동물을 상상해 보는 재미난 놀이책이다. '고양이가 화나면?', '고슴도치가 힘이 세지고 싶으면?', '공룡이 커다란 귀를 갖고 싶으면?'과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호기심을 자극한다.</p>
5	머리 감는 책	최정선	보림	2018	<p>아기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차례로 등장해서 머리를 감는다. 용감한 사자가, 귀여운 참새들이, 달리기 잘하는 말과 뽀뽀기 잘하는 캥거루 모자가 제각기 아주 엉뚱하고 재미나게 머리를 감는다. 앞 장면은 동물들의 평상시 모습이다. 무서운 얼굴로 으르렁거리는 사자, 전깃줄에 조르륵 늘어서 재잘대는 참새들, 힘차게 달리는 말, 경중경중 뛰어가는 캥거루가 등장한다.</p>

>> 2단계 아장아장(2~3세 대상)

6	멋진 공룡이 될 거야!	남윤익	웅진주니어	2021	
	주인공은 멋진 공룡이 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한다. 화려한 겉모습을 가진 공룡이 아닌 내면이 단단하게 성장한 진짜 '멋진 공룡' 말이다.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지켜 주는 건 물론이고, 모두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낸다. 섬세하고 배려 넘치는 행동에서 뿜어 나오는 다정한 마음이 주인공을 더욱 멋진 공룡으로 만든다.				
7	바빠요 바빠	이정빈	이야기꽃	2020	
	꼬맹이들이 열광하는 온갖 자동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간다. 탈탈탈탈! 트랙터는 봄이 와서 밭을 갈아야 한다. 뽐뽐라뽐! 아이스크림 차는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이 기다리니 바쁘다. 덜컹덜컹! 청소차는 마을을 깨끗이 해야 하니 바쁘고, 부릉부릉! 버스는 사람들을 일터까지 태워줘야 하니 바쁘다. 그럼 쌔애애앵! 경주용차와 봉봉! 대통령 리무진은 뭇 땀에 바쁠까?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비켜줘야 할 세상에서 가장 바쁜 자동차는?				
8	별낙시	김상근	사계절	2019	
	따스한 이야기꾼 김상근 작가가 들려주는 잠자리 그림책. 김상근 작가가 이번엔 새하얀 눈발이 아니라 푸른 밤하늘, 빛나는 별 천지로 우리를 초대한다. 장면마다 가득 펼쳐지는 신비로운 밤하늘 풍경은 고요한 밤에만 느낄 수 있는 차분하고 깊은 감성을 톡톡 건드린다.				
9	사자가 아기를 만났어	김새별	사계절	2021	
	여기 사자가 한 마리 있다. 텅텅 빈 풀밭 위에 그것도 혼자. 마치 먹잇감 앞에서 숨을 죽이듯 가만히 앉아있던 사자가 스윽 고개를 돌린다. 시선이 닿는 곳에 앉아있는 귀여운 아기. 동물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용맹스런 사자와 아기라니.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 과연 괜찮을까?				
10	으쌔으쌔 당근	멜리	책 읽는 곰	2021	
	어느 별 좋은 오후, 토끼와 두더지가 엄마 심부름을 나선다. 당근 밭에 가서 당근을 뽑아 오는 심부름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당근이 뽑히질 않았다. 알고 보니 같은 당근을 땅 위에서는 토끼가, 땅속에서는 두더지가 잡아당기고 있던 것이었다. 영문을 알 리가 없는 토끼와 두더지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당근을 뽑기 위해 친구들은 하나둘 힘을 보탠다. 과연 토끼와 두더지는 무사히 당근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 2단계 아장아장(2~3세 대상)

11	응가 안녕!	유애순	길벗어린이	2020	
	기저귀 대신 변기와 친해져야 하는 아기들을 위한 배변 훈련 그림책이다. 배변 훈련의 전 과정을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처럼 보여주는 이 책은, 응가 체조를 통해 아기가 놀면서 쉽게 배변 훈련을 하고, 예쁜 똥을 낼 수 있게 도와준다. 사랑스러운 아기의 첫 변기 사용을 응원하는 귀여운 아기 곰의 행복한 응가 시간을 따라가 보자.				
12	장화 신는 날	이승범	북극곰	2021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여기저기 웅덩이가 생겼다. 이럴 땐 장화가 필요하다. 신발 가게원숭이 할아버지는 장화를 사러 올 친구들을 기다렸다. 신발 가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신발 가게 선반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장화들이 줄지어 있었다. 과연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은 누구일까?				
13	초록초록	이순옥	사계절	2020	
	선두로 달리는 도토리과 바짝 따라붙는 사과팀. 망고, 토마토, 귤 등등 서로 짝을 이뤄 달리는 장면은 여태 보던 초록색 장면들과 대비되어 유난히 더 반갑다. 그리고 엄마의 색을 닮아 물들어 갈 초록들이 기대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열심히 뛰는 친구들을 서로 응원하기도 하고 시원하게 내리는 비도 맞으며 때로는 햇볕 아래 그 순간들을 즐기는 초록들이 무척 사랑스럽다.				
14	퐁당	이주혜	웅진주니어	2021	
	목욕할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이 물속에서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여 주며 아이들이 자연스레 목욕 놀이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림책이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놀이가 되듯, 목욕도 친근한 존재들과 함께할 때 기다려지는 즐거운 경험이 된다. “나도, 나도” 같이 놀자며 자연스레 욕조에 뛰어드는 아이의 밝은 모습이 미소 짓게 만든다.				
15	후후후	서지연	천개의바람	2020	
	아이가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후후후' 입김을 분다. 그러면 동동동 떠오른 비눗방울이 멀리멀리 날아간다. 이번에는 종이배를 물에 띄우며 '후후후' 입김을 분다. 종이배는 아이의 바람을 타고 동실동실 떠간다. '후후후' 입을 모아 바람을 불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후후후' 입김을 불어보는 행동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놀이하며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이다.				